

통합재가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2017 보건복지 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확고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월 9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 정책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11개 과제를 보고했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필수·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산업 성과 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이외의 질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년 2월)에 앞서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 연명의료계획서 DB 구축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의료를 취약지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권역응급·의상센터 책임진료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감소,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성인남성흡연율 29% 달성,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20명으로 감소 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첨단 의료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인구위기 대응 강화' 추진전략 중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월정액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고, 표준이용 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한국 성평등 100점 만점에 70.1점

국가성평등지수 꾸준히 개선 추세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가 100점 만점에 70.1점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0.1점으로 2014년 68.9점 보다 상승했으며,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양성평등 정책과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완전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보건 분야가 95.4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분야 평가지표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과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이다.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분야가 93.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교육·직업훈련분야 평가지표는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 경험률이다.

3위는 문화·정보분야(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격차) 87.1점, 4위는 복지분야(비민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71.6점, 5위는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71.5점, 6위는 가족분야(가사노동시간, 셋째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

자) 70.0점, 7위는 안전분야(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비율) 55.4점이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분야로 25.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로 산정했다.

문화·정보분야를 제외한 7개 분야 모두 2014년과 비교해 점수가 상승했다. 가족분야가 2014년 66.7점에서 70.0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우리나라 지역성평등지수는 73.0점이었다. 2015년 지역성평등지수를 16개 시·도별로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강원, 대전, 서울, 제주 지역이 상위등급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여가부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여성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상승효과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의사결정, 안전 등 모든 분야의 양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에 개선방안을 반영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jchoi@

휴먼 메디컬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응원

간협, 촬영장에 커피차 보내 격려

대한간호협회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휴먼 메디컬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촬영장에 커피차를 지난 1월 6일 보내 제작진과 배우들을 응원했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SBS 월화드라마(오후 10시)로 전국 시청률 26.0%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환기시킨 명품 드라마로 호평받으며 메디컬 드라마의 새 장을 열었다.

드라마는 지방의 들뜸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수간호사 오명심(진경분)은 사랑감과 욕심으로 소신과 의리를 지켜나가는 실력파다. 따뜻한 카리스마와 함께 입버린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춘 인물이다.

남자간호사 박은택(김민재)은 주위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훈남 캐릭터다. 전제 파자 의사이며, 거대하고 비정한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김사부(한석규 분)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열혈 의사 강동주(유연석 분)와 윤서정(서현진 분)의 성장기를 그렸다.

대한간호협회는 "'낭만닥터 김사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진들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대한간호협회가 '낭만닥터 김사부' 제작진과 배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커피차가 SBS일산제작센터에 설치됐다.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제작진과 배우들을 응원하고 싶어 커피차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커피차는 SBS일산제작센터 F세트장 앞에 설치됐다.

제작진은 드라마 기획의도를 통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소중한 가치를, 촘촘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치부되어져가는, 그러나 실은 여전히 우리 모두 아련히 그리워하는 사람다운, 사람스러운 것들에 대한 향수를, 바로 그런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드라마"라고 밝혔다.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지금 왜 이리 살고 있는지,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그동안 '제빵왕 김탁구' 등의 히트작을 낸 강은경 작가가 집필하고, 유인석·박수진 프로듀서가 연출한 작품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새해 바뀌는 법·제도

임신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 폐암검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변경 제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보인 부담률이 각각 20%p 인하돼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대아어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소렴급여를 지원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전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한다.

자동차무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에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의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과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55~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통보 시 금연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신부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 그동안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임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발도 과학이다. 이제 건강을 신자!

발 피로를 풀어주는 세계적인 특허제품인 NABE 간호사 건강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5켈레이상 주문시 : 10%DC
10켈레이상 주문시 : 15%DC
20켈레이상 주문시 : 20%DC

2011년 신제품 기능성 벨크로타입 출시



•NB-C05
- White
- 소재 : 합피, 소 가죽
- size : 225~250mm
- 가격 : White ₩3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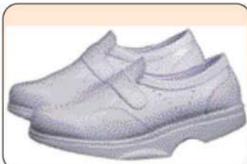
2켈레이 이상 주문시 : 10% 할인



•NB-N02(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N01(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C03(캐주얼)
White ₩4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NB-C01(캐주얼)
White ₩34,000
고급 인조 가죽
Size : 225~250



•NB-C02(고급형 캐주얼)
Black ₩60,000
천연 소가죽, 돈피
Size : 225~250



•NB-SW01(여성용 샌들)
Black / Beige 내피 : 소가죽 외피 : 고급인조가죽
Size : 225~250 ₩40,000



•NB-C07(캐주얼)
진발색 ₩6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런닝화 HSO11
네이비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80mm
150,000 → 95,000



런닝화 HSO10
흰색/분홍색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55mm
150,000 → 95,000



남성용 구두 NB-MD02
Brown 소재 : 소가죽
Size : 245~280mm
140,000 → 60,000



스니커즈
Black/White 소재 : 최고급 소가죽
Size : 225~280mm 180,000 원